

일시	4 월 13 일 13 : 30 상상파크 c&c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민서(2271374)	○
	정동오(2271199)	○
	윤준영(2271036)	○
	유성재(2091020)	○
진도	도서명: 자기만의 방	진도페이지: p.68 ~ p.89

2주차



[좌측 하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준영, 유성재, 정동오, 김민서]

토론 내용

< 2주차: 내 주변의 '현대판 주디스'는 누구일까? >


김민서: 울프는 셰익스피어한테 똑같이 천재적인 누이(주디스)가 있었어도, 여자는 이유로 학교도 못 가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을 거래. 2026년 지금, 우리 주변에서 환경이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재능을 못 펼치는 '현대판 주디스'는 누가 있을까?

김민서: 요새 나는 취준하는 중이라서 그런지, '지방이랑 서울의 인프라 격차'가 떠올랐었어. 내가 서울에만 살았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왔었는데, 지방에도 똑똑하고 재능 넘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대외활동이나 네트워킹, 인턴 기회가 다 서울에 몰려 있으니까 출발선부터 손해 보고 시작하는 느낌이라걸 얼마전에 느꼈거든.

유성재: 오, 그것도 현대판 주디스네. 난 '예체능이나 비주류 분야 도전하는 분들'도 생각났어. "그거 해서 밥 벌어먹고 살겠냐"는 주변의 시선이나 현실적인 비용 문제 때문에 중간에 접는 분들 보면 약간 안타까웠어.

정동오: 맞아, 그런 보이지 않는 압박이 무서운 것 같아. 그리고 요즘 시대가 평등해졌다고 해도, 은연중에 "남자는 이래야지, 여자는 이래야지" 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잖아. 그런 시선들이 개인의 가능성을 은근히 제한하는 것 같아.

윤준영: 동오 말대로 사회적 시선이 되게 무서운 게, 자기도 모르게 '난 안 될 거야' 하고 스스로 한계를 정하게 만들어서인 것 같아. 셰익스피어 누이 주디스도 주변에서 하도 기를 죽이니까 좌절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사회 기준에 맞춰 재능을 썩히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일시	5 월 6 일 13 : 00 상상파크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민서(2271374)	O
		정동오(2271199)	O
		윤준영(2271036)	O
		유성재(2091020)	O
	진도	도서명: 자기만의 방	진도페이지: p.90 ~ p.118
3주차	토론 내용		
		<p>[좌측 모자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민서, 윤준영, 유성재, 정동오, 조세홍 교수님]</p> <p>< 3주차: '분노'는 원동력일까, 감정 낭비일까? ></p> <p>윤준영: 울프가 다른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비평하면서, "글 속에 억울함이나 분노가 너무 날것으로 드러나서 작품을 망쳤다"고 지적해. 근데 억압이나 불공평한 일을 당했을 때 생기는 분노이 있어야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다들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p> <p>유성재: 난 솔직히 분노가 최고의 원동력이라고 봐. 역사적으로만 봐도 부당함에 대한 분노를 느꼈기에 사회가 성장해왔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예술이나 대중문화 같은 분야에서도 가끔 가공되지 않은 분노가 대중들에게 더 크게 와닿을 때도 있잖아, 그래서 어느정도의 분노를 느끼는건 동기부여 측면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되진 않는 것 같아.</p> <p>정동오: 성재형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울프가 걱정한 건 '감정 과잉'쪽이 아닌가 싶어요. 가끔 화가 많이 난 상태로 글을 쓰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나중에 후회할 때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3자의 공감을 얻고싶으면 오히려 분노를 어느정도 식히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게 낫지 않나 싶어요.</p> <p>김민서: 둘 다 맞는 말 같은데, 듣자보니까 나는 약간 타이밍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 처음 불을 지필 때는 성재오빠 말대로 분노라는 스타트가 필요한데, 그걸 결과물로 완성할 때는 동오 말대로 이성적으로 다루는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p> <p>윤준영: 근데 난 약자들에게 "화내지 말고 우아하게 말해라"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가스라이팅일 수 있다고 생각해. 당시 여성 작가들이 느낀 분노는 그 시대에 낼 수 있었던 가장 솔직하고 정당한 목소리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p>	

	일시	5 월 18 일 14 : 00 상상파크 c&c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민서(2271374)	O
		정동오(2271199)	O
		윤준영(2271036)	O
		유성재(2091020)	O
	진도	도서명: 자기만의 방	진도페이지: p.119 ~ p.168
4주차	토론 내용	<div data-bbox="528 607 1453 1279"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730 1294 1251 1330">[좌측부터 김민서, 정동오, 유성재, 윤준영]</p> <p data-bbox="491 1379 892 1415">< 4주차: 양성성이란 무엇인가 ></p> <p data-bbox="491 1444 1490 1541">유성재: 울프는 위대한 예술을 하려면 남성적인 마음과 여성적인 마음이 내면에서 서로 결합해야 한다며 '양성적 마음'을 강조했다. 젠더 갈등도 심하고 이분법적 흑백논리가 판치는 요즘 시대에 이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p> <p data-bbox="491 1574 1490 1671">유성재: 울프가 말한 '양성적 마음'은 젠더를 떠나서 '나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스피치처럼 흡수하는 유연함' 같아. "난 남자니까 이래", "난 문과니까 저래" 하고 스스로 틀에 가두지 않고 오픈 마인드로 세상을 보는 거지.</p> <p data-bbox="491 1704 1490 1800">김민서: 맞아. 요즘 인터넷 보면 편 가르기나 혐오 표현이 꽤 심하잖아. 흑백논리로 내 편 네 편만 나누지 말고, 서로 다른 관점을 상호 보완적인 가치로 바라보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한 것 같긴 해.</p> <p data-bbox="491 1834 1490 1930">윤준영: 하긴 팀플 할 때도 보면 어느정도의 이성을 가지면서 팀원들도 배려하면서 잘 통솔하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좋던데, 그런 양면성이 있는 사람이 요즘 시대에 진짜 매력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p> <p data-bbox="491 1964 1490 2083">정동오: 다들 얘기 잘해준다. 결국 '자기만의 방'을 가져야 하는 최종 목적지는, 내 내면을 어떤 편견도 없는 '자유로운 사유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나라는 생각이 들어.남들이 정해놓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자유롭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p>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김민서 (2271374)	취업 준비를 하며 느꼈던 서울과 지방의 인프라 격차를 '현대판 주디스'라는 개념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누려온 환경이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구조적 제약일 수 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갈등과 혐오 표현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타인의 관점을 상호 보완적인 가치로 바라보는 유연성이 왜 필요한지 깊이 배웠습니다. 울프가 말한 사유의 공간을 토대 삼아, 앞으로 편견 없이 타인을 포용하는 시선을 기르고 싶습니다.
	2	정동오 (2271199)	형식적 평등 속에서도 은연중에 작동하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보이지 않는 압박이 개인의 가능성을 어떻게 제한하는지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중심을 잡는 태도가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4회차에 걸친 토론을 마무리하며, 울프가 강조한 '자기만의 방'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어떤 프레임도 없는 '자유로운 사유의 공간'을 내면에 구축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유롭게 사유하는 멋진 지성인이 되겠습니다.
	3	윤준영 (2271036)	사회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당사자가 자기도 모르게 '난 안 될 거야' 하고 한계를 규정짓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4주차 토론에서 언급했듯, 이성적인 판단력과 팀원을 배려하는 공감 능력을 동시에 갖춘 '양면성'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유능한 인재의 조건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동기들과 다채로운 의견을 나누며 편협했던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타인의 강점을 수용하여 내면의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4	유성재 (2091020)	이번 토론은 울프의 고전적 통찰을 우리 세대의 현실적인 이야기로 재해석해 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변 시선이나 비용 문제로 꿈을 접는 예체능 및 비주류 분야의 지인들을 떠올리며 구조적 압박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특히 성별이나 전공의 틀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타인의 관점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양성적 마음'의 가치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법적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세상을 오픈 마인드로 넓게 바라보는 유연함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5		